

숙종 7년 중국선박의 표착과 백암성총의 불서간행

이종수
동국대학교

1. 머리말
2. 1681년 중국선박의 표착
 - 1) 표류선 불서의 처리
 - 2) 표류선의 실제
3. 성총의 佛書 수집과 간행
 - 1) 嘉興大藏經의 입수
 - 2) 성총의 불서 간행과 의도
4. 맺음말

요약문

조선후기 佛書刊行에 있어서 가장 공이 큰 사람은 栢庵性聰이다. 그는 1681년에 전남 임자도에 표류해온 중국 선박에 실려 있던 불서들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징광사와 쌍계사를 중심으로 197권 5000여권의 책들을 간행하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성총의 불서간행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중국 표류선의 실체와 그 불서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본고는 이런 점에 주목하여 표류선의 실체와 그 불서의 종류를 살펴보고, 성총의 불서간행에 있어서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1681년의 표류선은 일본으로 가던 중국 상선이였다. 나주 관아에서는 표류선의 불서들을 수습하여 조정에 올려 보냈다. 숙종은 틈틈이 불서들을 열람하였으나 배불적인 유학자들 때문에 왕실에 보관하지 못하고 남한산성의 사찰에 나누어 주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당시 동아시아 해상은 대만을 점거하여 청나라에 대항하고 있던 鄭氏一家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그 표류선은 정씨일가의 비호 아래에 무역

을 하던 중국 상선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류선에 있던 불서로서 관아에서 미처 수습하지 못한 것을 성총이 수집하여 간행하였는데 그 서적 중에는 1620년대에 葉祺胤이 간행한 『華嚴經疏演義鈔』가 있었다. 이 책은 중국 嘉興大藏經의 續藏에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표류선의 불서가 가흥대장경일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성총이 간행한 서적들과 가흥대장경의 목록을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성총이 간행한 불서의 대부분이 가흥대장경에 있는 책들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표류선의 불서는 가흥대장경의 불서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성총이 간행한 서적 중에는 가흥대장경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었다. 그 서적들은 당시 불교계에서 성립되고 있던 履歷過程 중에서 四集科의 교재였다. 그리고 성총이 간행한 가흥대장경의 불서들도 대부분 이력과정의 교재들에 대한 참고서에 해당하는 책들이었다. 그러므로 성총은 당시에 성립되고 있던 승려의 이력과정을 고려하여 불서를 간행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백암성총, 표류선, 불서간행, 가흥대장경, 『화엄경소연의초』

1. 머리말

栢庵性聰(1631~1700)이 17세기 말에 전라남도 징광사를 중심으로 佛書를 간행하여 널리 유통시킴으로써 조선후기 불교계가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음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¹⁾ 특히 그가 간행한 서적 중에 『華嚴經疏演義鈔』(이하 『화엄소초』)는 18세기 화엄학의 유행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였다. 淸涼澄觀(738~839)의 『華嚴經隨疏演義鈔』(이하 『화엄수소초』)가 조선전기에 이미 逸失되어 『화엄경소』만이 유통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성총에 의해 『화엄소

1) 근대에 이능화가 『朝鮮佛敎通史』 하편(서울: 新文館, 1918, 867~868쪽)에서 백암 성총의 불서 간행을 높이 평가하였고, 1975년에 李性陀가 「栢庵의 思想」(『승산박길진박사화갑기념한국불교사상사』, 원광대학교)에서 성총의 행적과 사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그 후 이만 교수의 「백암화상」(불교신문사 편, 『한국불교인물사상사』, 서울: 민족사, 1990)과 정각 스님의 「삼문수업의 형성에 기여 백암성총」(중앙승가대학교 신문사, 『한국불교인물사상사』, 승가대신문사, 2000) 등 성총의 전기에 대해 간략하게 다룬 글들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최근에 조명재 교수(신라대)가 「栢庵性聰의 佛典 편찬과 사상적 경향」(『역사와 경계』 제68집, 부산: 부산경남사학회, 2008)을 발표하였다.

초』가 간행됨으로써 조선후기 화엄학이 크게 유행되었던 것이다.²⁾ 뿐만 아니라 성총은 『정토보서』를 간행하여 18세기 정토신앙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런데 성총이 이처럼 불서를 간행할 수 있기까지는 다음의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 숙종 7년(1681) 6월 5일에 큰 태풍이 있었고, 이때 중국 선박이 전라도 임자도에 표류해 왔다. 표류선에는 불서들이 있었고 그 일부가 왕실에 보내졌다.

숙종은 틈틈이 그 불서들을 열람하였는데 조정 대신들은 불서를 궁궐 밖으로 내보낼 것을 奏請하였다. 왜냐하면 성리학을 본위로 삼고 있던 국가에서 임금이 불서를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숙종은 신하들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어서 마침내 남한산성의 여러 사찰에 불서를 내보냈다. 한편 임자도 근처 영광 불감사에 있던 성총은 중국선박의 표착과 불서에 대한 소식을 듣고 불서를 수집하여 간행하였다.

이상의 사건 중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숙종이 남한산성에 보냈다고 하는 불서들의 행방이고, 다른 하나는 표류선의 실체이다. 이는 자료가 미비하여 밝힐 수 없었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좀 더 이 문제에 천착하여 연구하지 못한 탓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총의 불서간행은 조선후기 불교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다.³⁾ 그러므로 이에 대해 보

2) 본고에서 다루는 『화엄소초』와 『화엄수소초』는 모두 청량 징관의 疏鈔이지만, 판각 시기와 장소가 다른 책이다. 후술하겠지만 隨字가 없는 『화엄소초』는 1625년에 중국의 葉祺胤이 간행한 것으로서 『화엄수소초』와 그 형식이 다르다.

3) 성총의 불서간행은 18세기 불교계의 경절문·원돈문·염불문의 三門修學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가령 그가 간행한 『화엄소초』는 원돈문의 확립에 기여하

다 면밀한 검토 없이 자료의 한계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특히 성충이 간행한 불서가 중국의 표류선에 있었던 것이므로 우연적인 불교교류이긴 하지만 동아시아 불교사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미해결 중에서 표류선의 실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실을 밝혀보고, 성충의 불서 간행과 그 의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표류선에 실려 있던 불서의 처리에 대해 왕조실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표류선의 실체에 대해 추적해 볼 것이다. 그리고 성충이 수집하여 간행한 불서를 통해 표류선 불서의 종류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표류선의 실체는 무엇이며, 왜 표류선에 불서가 가득 담겨 있었는지, 그 불서는 어떤 종류의 것들이며, 성충의 불서간행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1681년 중국선박의 표착

1) 표류선 불서의 처리

숙종 7년(1681) 6월 5일에 태풍이 불어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 서울 근처 산에는 아릅드리 소나무가 많이 뽑혔으며, 함경도 덕원과 경상도 함양 등지에서는 폭우가 내려 많은 사람들이 물에

였으며, 『정토보서』는 엄불문의 확립에 기여하였다.

떠내려가 목숨을 잃었다.⁴⁾ 게다가 전라도 바닷가에서는 고기잡이 어부들과 해산물을 채취하던 어민 71명이 파도에 휩쓸려 죽었다.⁵⁾ 전국의 피해는 속속 서울의 조정에 보고되었고, 각지에서는 피해를 수습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런 가운데 전남 신안군 荏子島에는 낮선 선박들이 파도에 떠밀려 왔다.⁶⁾ 6월 5일의 태풍으로 배가 파손되어 길을 잃고 표류하던 중에 임자도까지 온 것이었다. 신안 앞바다는 예로부터 태풍으로 상선들이 침몰하거나 표류해 오던 곳이었다. 배에는 거친 풍랑 속에 살아남은 중국인들과 무역을 위해 싣고 가던 각종 물품들이 실려 있었다. 나주 관아에서는 중국 상인들과 배에 실려 있던 각종 물건들을 수습하여 조정에 올려 보냈다. 이에 대해 『숙종실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표류선에는 佛經이 있었는데 표지가 아주 새 것이었고, 佛器 등의 물건은 좋은 솜씨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것들이 물에 떠다니다가 조수에 밀려와, 잇따라 전라도·충청도 등의 바닷가 여러 진과 포구에서 건졌는데, 그 서적의 총계는 1천여 권이었다.⁷⁾

위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거친 풍랑 속에서 배가 많이 파손되

4) 『숙종실록』 7년(1681) 6월 5일~7월 5일조 참조.

5) 『숙종실록』 7년(1681) 7월 8일조. “전라도 바닷가 고을의 고기 잡고 해산물 채취하던 백성 71명이 6월 5일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빠져 죽었다고 전라도의 신하가 아뢰었다(全羅道濱海邑漁採民人七十一名 六月五日 出海 遇風 溺死 道臣以聞).”

6) 『숙종실록』 7년(1681) 7월 9일조에서 “중국 상선이 큰 풍랑 때문에 표류하여 나주의 지도 등지에 도달한 것이 많았다(中國商舶 因大風 多漂到羅州智島等處)”라고 하여 중국 선박의 숫자는 불분명하다.

7) 『숙종실록』 7년(1681) 7월 9일조. “有佛經經帙甚新 佛器等物製造奇巧 漂泛海潮 連爲全羅忠淸等道沿海諸鎮浦所拯得 通計千餘卷.”

었던 것 같다. 그래서 배에 실려 있던 물품들 중 일부는 바다 속에 빠지거나 물에 떠다니다가 해변으로 밀려왔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중에는 佛書와 佛器가 많았던 모양이다. 그런데 위의 기록에서 서적의 총계가 1천여 권이라는 말은 나주 관아에서 수집하여 조정에 올린 총계일 것이다. 나무케좌에 담겨 바다에 떠다니다가 건져진 불서와 배에 남아 있던 불서를 모두 합한 것이 1천여 권이었던 것 같다. 후술하겠지만, 표류선에 실려 있던 불서는 중국의 嘉興大藏經으로서 7천권이 넘는 분량이다. 그렇다면 관아에서 수집하지 못한 불서는 더욱 많이 있었을 것이며, 이 불서들은 아마도 세 갈래의 운명을 맞이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첫 번째는 바다 속에 가라앉아 영원히 사라진 것이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민간에서 건져 사찰 등지에 보관된 것으로서, 백암성총이 수집하여 간행한 것은 이 불서들 중의 일부였다. 세 번째는 관아에서 건져 왕실에 보내진 것으로서, 이 불서들은 왕실 창고에 보관되었고, 임금은 틈틈이 그 불서들을 열람하였다.⁸⁾ 그런데 조정의 대신들은 궐내에 불서를 두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궐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奏請하였다. 이에 대한 기록은 1681년 7월 9일 『승정원일기』의 다음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정중이 말하였다. “이번에 전라도에서 건져 얻은 서책들은 모두 불경입니다. 만약 오래 內間에 둔다면 상께서는 비록 두고자 하는 뜻이 없더라도 바깥사람들은 반드시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내어 주게 하십시오.”

8) 『속종실록』 7년(1681) 7월 9일조. “도의 신하들이 연속해서 계문하고, 그 책을 침부하여 올렸는데, 임금이 가져다 보고 오래도록 내려 주지 않았다(道臣連續啓聞 附上其書上取覽 久不下 鼎重言異端之書 不宜久留聖覽 壽恒亦言之 上乃命分賜南漢寺刹).”

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말하였다. “알았다. 내가 평소에 내어 주고자 하였다.” … 임금이 말하였다. “책의 글자가 바르고 곧으니 아꼈만하다. 근래의 물건 같지 않다.”⁹⁾

17세기 말의 정세는 서인과 남인으로 나뉘어져 당파싸움이 한창이었다. 송시열(1607~1689)을 중심으로 한 서인은 주자학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교조적 경향을 띠었고, 尹鑰(1617~1680)를 중심으로 한 남인은 서인의 교조주의적 경향에 비판적이었다. 결국 1680년에는 庚申換局으로 윤희는 賜死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정에서는 불서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임금이 불서에 심취하여 열람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조정 대신들은 임금에게 궐내에 불서를 두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궐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奏請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숙종은 대신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남한의 사찰’에 나누어 주라고 하는 어명을 내린다.¹⁰⁾ 여기서 남한의 사찰이란 남한산성의 사찰을 말한다.¹¹⁾ 따라서 당시 8도도총섭이 있던 남한산성의 開元寺를 중심으로 불서들이 分賜되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일

9) 『승정원일기』 제283책, 숙종 7년(1681) 7월 9일조. “鼎重曰 今番全羅道所拯得書冊 俱是佛經 若久置內間 則自上雖無留意之事 而外人想必致訝 使之出給 何如 上曰 唯 予欲出給 雅矣 … 上曰 冊字 楷正可愛 不似近時物.”

10) 『속종실록』 7년(1681) 7월 9일조. “민정중이 이단의 서책을 오래 머물러 두고서 임금이 보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김수항도 그것을 말하자, 임금이 南漢의 사찰에 나누어 내려 주도록 명하였다(鼎重言異端之書 不宜久留聖覽 壽恒亦言之 上乃命分賜南漢寺刹).”

11) 高橋亨은 『李朝佛敎』(東京: 寶文館, 1929, 691쪽)에서 남한산성 ‘開元寺’라고 지칭하였다.

단락 된 조정의 불서 처리는 유학자들의 불교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2) 표류선의 실체

그러면 입자도에 표류해 온 중국선박에 왜 佛書와 佛器가 가득 담겨 있었을까? 그 선박들은 어디로 가려던 길이었을까? 그 불서들은 누가 언제 간행한 것이었을까?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동아시아의 海上政勢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17세기 후반은 중국, 조선, 일본의 해상 私무역이 금지되어 있던 시기였다. 고려 말부터 악명을 떨치던 왜구들은 1392년 일본의 남북조 내란이 종말을 고하면서 잦아들었으나 1467년 應仁의 난 이후 豊臣秀吉이 일본을 통일할 때까지 다시 왜구가 성행함으로써 중국과 조선은 해상무역을 금지시켰던 것이다.¹²⁾ 특히 중국은 17세기에 청나라가 중국대륙을 차지하면서 해상무역을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이는 청나라에 끝까지 반항하던 鄭成功(1624~1662) 일파가 대만으로 근거지를 옮겨 계속해서 청나라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중국인 鄭芝龍과 일본인 田川七左衛門의 딸 사이에 태어난 鄭成功은 일본의 平戶에서 출생하여 7살에 중국으로 갔으며 福松이라는 일본 이름을 가진 인물이었다. 鄭芝龍은 대만해협으로부터 東지나해 일대의 해상권을 장악하면서 해상무역을 통해 그 세력을 떨치고 있었는데, 청나라가 침입해 오자 청나라에 귀순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들 鄭成功은 아버지에 반기를 들고 청나라와 대립하였다. 鄭成功은 南京을 공격하는가 하면 福建省 일대에서 淸軍을 맞이하여 군사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청나라에 대항하여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으므로 1661년부터 台灣을 근거지로 하여 장기간에 들어가고자 하였다. 대만은 섬이었으므로 해상전에 약한 淸軍을 상대로 안정적인 근거지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마침내 鄭씨 일가는 1661년에 군사작전을 감행하여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차지하고 있던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였다. 그러자 청나라 조정은 명나라 때부터 있어온 海禁술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여 어선과 상선의 출입을 통제하더니 1661년부터는 遷界술을 발동하여 산둥성·광둥성·복건성의 연해에 있는 주민을 해안선으로부터 30리 안으로 이주시키고, 연안의 거주민 중에 鄭씨 세력을 지원하거나 연대하는 이가 있으면 가차 없이 처벌하였다. 이에 따라 해상은 완전히 鄭씨 세력에 의해 장악되었다.¹³⁾

鄭成功은 청나라 침입 초기부터 꾸준히 일본에 군대를 요청하였다. 이민족인 청나라를 물리치고 명나라를 다시 건국하기 위해 일본의 원조를 희망하였던 것이다. 鄭成功의 고향이 일본 平戶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서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¹⁴⁾ 그러나 鄭成功은 1662년에 병으로 사망하여 그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鄭成功의 뒤를 이어 그의 장남 鄭經이 권력을 계승하였다. 鄭經 역시 부모의 유업을 이어받아 청나라에 대립

12) 荒野泰典,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9.

13) 松丸道雄 外4人 編, 『中國史』 4, 東京: 山川出版社, 1999, 331~333쪽; 寺尾善雄, 『(明末の風雲兒)鄭成功』, 東京: 東方書店, 1986.

14) 石原道博, 『鄭成功』, 東京: 三省堂, 1941.

하였으며, 일본과의 무역도 계속 유지하였다. 그리고 운남성·광둥성·북건성을 중심으로 이른바 ‘三藩의 난’¹⁵⁾이 일어났을 때 반란군에 호응하여 청나라에 대항하였다. 그러나 1681년 三藩의 난이 진압되었으며 鄭經마저 죽고 말았다. 鄭經을 이어 12살의 어린 나이로 鄭克塽이 등극하였지만 정씨 일가는 점차 고립되어 갔다. 결국 1683년에 鄭克塽이 중국에 항복함으로써 대만의 정씨 정권은 붕괴하고 말았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1681년 임자도에 표류한 중국선박은 대만을 차지하고 있던 鄭씨 일가의 무역선으로서 일본에 가던 상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⁶⁾ 다음의 『승정원일기』에서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민정중이 말하였다. “그 책들은 모두 佛經입니다. 생각건대 일본이 好佛하므로 가서 팔고자 하였으나 중도에 표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수항이 말하였다. “이 일은 표류한 중국인들이 서울에 들어오기를 기다려 물어서 그 대답을 들어야 자세한 곡절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그 책들을 보건대 틀림없이 중국의 책입니다.”¹⁷⁾

표류선은 본래 중국의 무역선으로서 일본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15) 三藩의 난(1673~1681)은 1673년에 오삼계가 운남성을 기반으로 청나라에 반란을 일으키자 광둥성과 북건성에서 동조하였던 사건을 말한다. 그러나 이들의 반란은 1681년에 진압되었다.
 16) 당시 일본의 長崎에는 鄭씨 일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중국 무역선은 거의 없었다.(任鴻章, 『近世日本と日中貿易』, 東京: 六興出版, 1988, 107~112쪽 참조).
 17) 『승정원일기』 제283책, 숙종 7년(1681) 7월 9일조. “鼎重曰 其冊 皆是佛經 意者日本好佛 故將欲往賣 而中途漂海者也 壽恒曰 此則待漂漢人入京而問之 觀其所答 可得其曲折矣 臣蓋見其冊本 必是唐冊也.”

태풍을 만나 조선에 표착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청나라가 해상을 봉쇄하고 있던 상황에서 불경을 실은 상선이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갈 수 있는 세력은 웬만한 해상 권력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과의 지속적인 무역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 해상무역을 장악하고 있던 정씨 일가의 무역선일 가능성은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당시 중국과 일본의 주요 교역 품목은 生糸, 絹織物, 砂糖 등이었는데 여러 교역품 중에는 佛書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1654년에 일본에 건너가서 황벽종을 개창하였던 중국 승려 隱元隆琦(1592~1673)의 제자들이 정씨 일가의 무역선을 이용해 자주 왕래하고 있었다.¹⁸⁾ 게다가 隱元은 명말부터 판각되기 시작하여 한창 간행중이던 嘉興大藏經(이하, 가흥장)의 일부를 입수하여 소장하고 있었고,¹⁹⁾ 이것을 鐵眼道光(1630~1682)이 覆刻하여 1669년부터 1681년에

18) 隱元이 渡日할 때에도 鄭成功의 무역선을 이용하였다. 鄭成功과 隱元과의 관계는 『旅日高僧隱元中土來往書信集』(陳智超, 韋祖輝, 何齡修 編, 北京: 中華全國圖書館文獻縮微複製中心, 1995)에 수록되어 있는 편지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는 隱元이 渡日하던 해에 鄭成功이 隱元에게 보낸 편지와 鄭成功의 부하 장수였던 張光啓가 1660년에 일본에 군대를 요청하러 왔을 때 隱元에게 보낸 편지 등이 수록되어 있다.
 19) 가흥장이 언제부터 일본에 전래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勝性印(1598~1671)이 隱元에게 1658년에 보시하였던 기록이 보이므로 隱元이 渡日하던 즈음이었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예전에는 隱元이 渡日할 때 嘉興藏을 가지고 온 것으로 보기도 했다. 이는 赤松管明의 『鐵眼禪師』(弘文堂, 1942, 54쪽)에서 “老隱元は自ら支那から携行した藏本を興へた”라고 하였고, “鐵眼は老隱元より頂戴した藏本をそのまま活用して底本としたのである”이라고 한 데서 오해가 생겼던 것 같다. 隱元이 중국을 떠날 때 嘉興藏을 가지고 갈 여력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隱元이 渡日한 이후에 勝性印에게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大槻幹郎의 「黃檗版大藏經の原本について」(『影印黃檗版大藏經刊記集』 京都: 恩文閣出版, 1994)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르기까지 黃檗版一切經(이하 황벽장)을 간행하였다.²⁰⁾ 가홍장은 ‘正藏’과 ‘續藏’ 그리고 ‘又續藏’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황벽장은 그 중에서 정장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1681년까지 복각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가홍장과 황벽장의 목록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²¹⁾ 즉 ‘속장’과 ‘우속장’은 포함되지 못한 것이다. 추측건대, 鐵眼은 가홍속장까지 복각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표류선의 불서를 구입할 사람은 바로 鐵眼을 비롯한 대장경 간행자들이었을 것이다.²²⁾ 그런데 가홍속장을 신고 가던 배가 태풍을 만나 일본에 도착하지 못함으로써 황벽장은 정장만을 복각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3. 성종의 佛書 수집과 간행

1) 嘉興大藏經의 입수

숙종이 대신들의 요청에 의해 남한산성 開元寺 등에 나누어 안치

20) 大藏會 編, 『大藏經-成立と變遷』, 京都: 百華苑, 1989; 李富華/何梅 著, 『漢文佛教大藏經研究』, 北京: 宗教文化出版社, 2003, 595-598쪽.

21) 佛教大學佛教文化研究所 編의 『獅谷法然院 所藏(麗藏對校)黃檗版大藏經並 新續入藏經目錄』(京都: 佛教大學 佛教文化研究所, 1989)과 中嶋隆藏의 『明萬曆嘉興藏の出版とその影響』(東京: 東北大學大學院, 2005)에 수록되어 있는 「『嘉興大藏經目錄』三種對照表」를 비교해본 결과 嘉興正藏과 黃檗版一切經의 목록이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22) 필자는 2008년 12월 6일에 일본의 ‘東アジア仏教研究会’에서 발표한 「黃檗版一切經に嘉興續藏が収録されていない理由について」라는 논문에서 鐵眼이 가홍속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일본에 수입하여 간행하려 했지만 1681년에 가홍속장을 실은 중국 선박이 일본에 도착하지 못하여 가홍속장을 복각하지 못했음을 논증하였다.

한 불서는 가홍장의 일부였다. 즉 중국 표류선에 있었던 불서는 가홍장이었던 것이다.²³⁾ 가홍장은 흔히 萬曆藏, 徑山藏, 方冊藏, 楞嚴寺版이라고도 불리는데, 명나라 萬曆 17년(1589)에 처음 開刊하여 청나라 康熙 51년(1712)까지 120여년에 걸쳐 완성되었다. 이 대장경에 수록된 典籍은 약 2195부, 10332권으로서 중국에서 간행된 역대 대장경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이다.²⁴⁾ 가홍장은 密藏道開가 1582년(만력 10)경에 발원하여 幻豫法本과 함께 1589년(만력 17)에 五臺山 紫霞谷 妙德菴에서 처음 판각하였다. 그런데 오대산은 날씨가 춥고 지역이 험준하며 교통이 불편하였기 때문에 5년 후인 1593년에 浙江省 余杭 徑山으로 판각장소를 옮겼다. 이로부터 대략 40년간 景山 萬壽禪寺, 寂照庵, 化城寺를 중심으로 판각이 이루어졌다. 1597년에 道開가 갑자기 사라지고 얼마 후 法本마저 세상을 떠나자 일시 대장경 사업이 혼란을 빚었으나 1601년에 道開의 제자 念云興勤에 의해 다시 추진되었다. 그러나 1630년대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농민반란이 일어나고 북쪽에는 여진족의 청나라가 침입해 오며 따라 시주자를 구하기가 힘들어졌다. 그래서 경전 판각을 각지에 분산하여 위임하였다. 그리고 1640년대 이후에는 그때까지 판각한 대장경을 인쇄하고 판매하여 그 수입을 가지고 대장경 사업을 이어갔다. 이 시기

23) 김용태는 「朝鮮後期 佛教의 臨濟法統과 教學傳統」(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58쪽)에서 1681년 중국 표류선에 있던 佛書를 嘉興大藏經일 것으로 추정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아래에 그 증거를 밝혔다.

24) 본고는 李富華/何梅 著, 앞의 책에서 제시한 분량을 따랐다. 그러나 大藏會 編, 앞의 책, 82쪽에서는 1618부 7334권으로 완성되었다고 하였고, 呂徽의 「明刻徑山方冊本藏經」(『呂徽佛學論著選集』3, 齊南: 齊魯書社出版, 1996, 1484~1489쪽)에서는 正藏 1654部 6930卷, 續藏 248部 3800卷, 又續藏 318部 1880卷으로서 총 2220部 12610卷으로 계산하였다.

에 대장경의 판각과 유통의 중심지가 浙江省 嘉興府 楞嚴寺로 바뀌었다. 그리고 1711년을 전후하여 대장경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러한 상황은 지속되었다.²⁵⁾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홍장은 ‘정장’과 ‘속장’ 그리고 ‘우속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장은 영락제의 칙령에 의해 만든 北藏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며,²⁶⁾ 속장과 우속장은 역대 중국 대장경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정장과 속장의 완성 연대는 분명하지 않다. 1676년에 嘉興府 楞嚴寺에서 印經하여 정장과 속장이 간행되었을 때에도 정장이 판각되고 있기 때문에 정장과 속장의 간행 시기를 구분하기는 어렵다.²⁷⁾ 이 대장경은 일본으로도 수출되었는데, 특히 1654년에 渡日한 隱元에 의해 본격적으로 일본에 소개되어 일본에서 黃檗藏이 만들어진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면 백암성총이 표류선에서 입수하였던 경전을 위에서 말한 가홍장이라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중요한 두 가지만 들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성총이 간행한 경전 중에 葉祺胤이 간행한 『화엄소초』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화엄소초』는 중국의 거의 모든 대장경에 포함된 것이지만 1625년경에 섭기윤에 의해 간행된 것은 가홍속에만 수록되어 있다.²⁸⁾ 게다가 『화엄소초』는 화엄경의 經과 疏와

鈔를 습本하여 간행한 것으로서 그 이전의 『화엄소초』와도 형식이 다르다.²⁹⁾ 그러므로 성총이 섭기윤의 『화엄소초』를 입수하여 간행하였다는 증언은 그가 입수한 대장경이 가홍장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그 서적들을 수집하여 간행한 백암성총의 다음 글에서 확인된다.

근래에 대장경을 실은 배가 표류하여 우리나라에 왔다. 그 배에는 명나라 평림거사 葉祺胤이 편찬하여 간행한 80권 전부가 있었는데 다행히 내 손에 들어왔다.³⁰⁾

위의 글은 성총이 입수한 『화엄소초』가 평림거사 섭기윤이 간행한 것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표류선의 불서가 속장을 포함한 가홍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성총이 간행한 서적들 대부분이 가홍장에 포함된 불전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의 <표1>에서 보듯이 『정토보서』와 四集을 제외하면 모두 가홍장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토보서』 역시 가홍속장의 정토서적을 편집하여 엮은 것이기

稀記念論集刊行會 編, 『禪學研究の諸相』, 東京: 大東出版社, 2003.

29) 여기에서의 『화엄소초』는 武林 昭慶寺本으로서 섭기윤이 『화엄소초』를 간행할 때 저본으로 삼았던 책이다. 昭慶寺本은 ‘隨疏’의 隨字가 덧붙은 제목이고, 섭기윤이 간행한 책은 ‘隨’字가 빠진 제목이다. 그리고 昭慶寺本은 『화엄경』의 經文을 생략하고 疏와 鈔만으로 구성된 책인데 비해, 섭기윤의 『화엄소초』는 經文과 疏, 鈔가 함께 구성된 책이다. 이에 대해서는 혜남의 「清涼 華嚴經疏鈔의 流傳」(『脩多羅』7, 합천: 해인사승가대학, 1992) 참조.

30) 성총, 「海東新刻清涼華嚴疏鈔後序」, 『화엄소초』(송광사 성보박물관 소장,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頃年載大藏一航 漂至鯉域 有明平林葉居士祺胤所釐合登梓者 八十卷全經 幸入吾手.”

25) 李富華/何梅 著, 앞의 책; 中嶋隆藏, 『明萬曆嘉興藏の出版とその影響』, 東京: 東北大學大學院, 2005.

26) 北藏에 들어있지 않은 南藏 典籍과 중국 찬술 典籍 41부 591권이 부가된 것이다.

27) 李富華/何梅 著, 앞의 책, 492~494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런데 大藏會 編 앞의 책, 82쪽에서는 1666년에 속장을 개판하고 1676년에 우속장을 완성하였다고 하였다.

28) 中嶋隆藏, 「嘉興續藏所收『大方廣佛華嚴經疏演義鈔』較刻の葉祺胤」, 田中良昭博士古

때문에 사실상 가홍장을 저본으로 하여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정토보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전적들이 『淨土資糧全集』 『淨土晨鐘』 『歸元直指』 등인데,³¹⁾ 이들은 모두 가홍속장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성총이 서문에서 『정토보서』의 글은 표류선에서 구한 정토 저술에서 채록하였다고 하였으므로 가홍장을 저본으로 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³²⁾

표1) 백암성총이 간행한 불전

판각 장소	불전명	간행 연도	가홍장의 수록 여부	비고
澄光寺	淨土寶書 (1권 1책)	1686	없음	續藏에 있는 정토서적을 편집하여 간행한 것임
	金剛般若經疏論纂要刊定記會編 (10권 5책)	1686	續藏	현재의 『가홍대장경』 31에 수록되어 있음 ³³⁾
	四經持驗記(4권 1책)	1686	續藏	
	大慧普覺禪師書 (1권 1책)	1686	正藏	嘉興藏과의 관계 불분명

31) 이에 대해서는 이종수의 「조선후기 淨土思想 연구」(『회당학보』 제13집, 서울: 회당학회, 2008)와 조명제의 앞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32) 성총, 「淨土寶書序」(『한불전』8-484). “내가 요즘 중국책 정토관련 서적을 10여 권이나 얻었다. … 마침내 여러 저술을 모으고 그 가운데에서 훌륭한 격언과 고급 왕생의 아름다운 글들을 가려 뽑아 한 권의 책으로 펴내었다(不慧 近獲唐本淨土著述 無慮十有餘秩 … 遂蒐獵諸述 採掇格言及古今往生之章章者 輯成一編).”

33) 中嶋隆藏의 『明萬曆嘉興藏の出版とその影響』에 수록되어 있는 「『嘉興大藏經目錄』三種對照表」에는 『金剛般若經疏論纂要刊定記會編』이 실려 있지 않다. 그러나 『(明版)嘉興大藏經』 31(台北: 新文豐出版公司, 民國76[1987])에는 성총이 간행한 것과 같은 『金剛般若經疏論 纂要刊定記會編』이 실려 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저자에 대해 “秦三藏法師鳩摩羅什譯經 唐圭山大師宗密述疏 宋長水沙門子璿錄記 清荊豁後學沙門行策會編”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가홍장의 ‘속장’ 혹은 ‘우속장’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會編의 저자가 청나라 사람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속장으로 간주하여 표기하였다.

四集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1권 1책)	1686	없음	
	禪源諸詮集都序 (2권 1책)	1686	없음	嘉興藏에 같은 제목이 있으나 체제가 약간 다름
	高峰和尚禪要 (1권 1책)	1686	없음	
澄光寺 大源庵 梵魚寺	大方廣佛華嚴經疏鈔 (80권 70책)	1690 1700	續藏	
雲興寺 定慧寺 靈隱寺	大明三藏法數 (50권 17책)	1690	正藏	
雙磎寺	華嚴懸談會玄記 (40권 10책)	1695	正藏	
	緇門警訓 (3권 3책)	1695	正藏	성총이 주석함
	大乘起信論疏筆削記會編 (4권 4책)	1695	正藏	‘會編’은 성총이 하였으므로 嘉興藏에는 『大乘起信論疏筆削記』가 실려 있다.

이상의 두 가지 내용에서 중국 표류선에 있었던 불서가 가홍장임을 확신할 수 있다. 다만 四集의 책들은 백암이 표류선의 불서를 수집하는 것과 상관없이 필요에 의해 간행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위의 목록과 권수는 영조 42년(1766)에 金相福이 찬술한 「栢庵堂性聰大禪師碑文」의 기록과 일치한다.³⁴⁾ 비문에서 『화엄경소초』 및 『대명법수』, 『회현기』, 『금강기』, 『기신기』, 『四大師所錄』³⁵⁾과 『정토보서』 등 190권을 간행하였다고 하였는데, 위의 표에서 보듯이 성총이 간행한 불전은 총 12종류 197권 115책이다. 이렇게 보면 비문에서 190권을 간행하였다고 한 기록과 현존하는 성총의 불서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34) 金相福 撰, 「栢庵堂性聰大禪師碑文」, 『韓國高僧碑文總集』, 李智冠 編, 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0, 298쪽.

35) 여기서 四大師所錄이라고 한 것은 <표1>에서 보이는 四集을 말한 것 같다.

2) 성총의 불서 간행과 의도

碑文에 의하면, 성총은 13세에 출가하여 16세에 法戒를 받았으며, 18세에 지리산에 들어가 翠微守初의 문하에서 9년간 수학하였다. 그 후 30세부터 경전을 강의하기 시작하였으며, 명산을 두루 돌아다녔다. 즉 그는 浮休善修(1543~1615)－碧巖覺性(1575~1660)－翠微守初(1590~1668)의 법맥을 이은 浮休 문파 제3대 제자가 된다.³⁶⁾ 그러면 성총은 어떻게 해서 표류선의 불서를 구할 수 있었을까? 1681년 표류선이 임자도에 표착했을 때 성총은 인근 지역인 영광 佛岬寺에 있었다.³⁷⁾ 그래서 중국선박이 나주 앞바다에 있는 임자도에 표착했다는 소식을 비교적 빨리 접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표류선에 불서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곳으로 달려갔을 것이다. 영조 42년(1766)에 金相福이 찬술한 「栢庵堂性聰大禪師碑文」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백암성총은) 일찍이 바닷가 나루터에 큰 선박이 와서 정박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실려 있는 것을 보았는데, 명나라 平林 葉居士가 교간한 『화엄경소초』 및 『대명법수』, 『회현기』, 『금강기』, 『기신기』, 四大師所錄과 『정토보서』 등 190권이였다. 이에 선사는 크게 놀라고

36) 부휴계의 계파와 관련해서는 김용태의 「'浮休系'의 계파인식과 普照遺風」(『보조사상』 제25집, 서울: 보조사상연구원, 2006)이 주목된다.

37) 明眼, 「新刻華嚴疏鈔後跋」(大源庵 刻成 『화엄소초』 제80권)에는 “백암선사가 항상 화엄의 오묘한 뜻을 구하였지만 화엄소초를 보지 못하여 마음의 병이 된지 오래였는데, 임술년 여름에 불갑사에 갔다가 서해면에서 이 소초를 보게 되었다.(栢庵禪師 常究華嚴奧義而不見鈔釋 心病久矣 壬戌夏嘗遊佛岬 得此訣於西海上)”라고 기록하고 있다.

기이하게 여겨 대중들과 함께 예를 올리고 삼가 받들어 신심을 내어 여러 경전을 간행하여 수년 내에 세상에 전하여졌다. 이로부터 사방의 승려들이 모두 존경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선사를 추대하여 종사로 삼았다.³⁸⁾

위의 기록에서 보듯이 표류선에서 불서를 발견한 성총은 대중들과 함께 발심하여 불서를 간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서를 한꺼번에 표류선에서 구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표류선에 있던 불서는 관아에서 수집하여 서울에 보냈으므로 성총이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은 관아에서 미처 수습하지 못하고 표류선에 남아 있던 것이거나 해변 곳곳에 떠내려 온 것들일 것이다. 표류선이 임자도에 표착한 1681년은 성총의 나이가 51세였는데 55세에 수집한 경전을 가지고 징광사로 갈 때까지 4년 동안 곳곳에 흩어진 불서들을 수소문하여 수집하였던 것이다.³⁹⁾

성총이 직접 표류선이나 해변에서 구한 것 외에 흩어진 불서를 수집하였던 통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남한산성 사찰에서 불서를 수집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바다에서 건져 올린 불서를 보관하고 있던 사찰에서 수집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남한산성 사찰에서 보관하였던 불서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어쩌면 남한산성에서는 불서를 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38) 「栢庵堂性聰大禪師碑文」(李智冠 編의 앞의 책, 298쪽). “嘗於浦海邊 見大船來泊 視其所載 卽大明平林葉居士 所校刊華嚴經疏鈔 及大明法數 會玄記 金剛記 起信記 四大師所錄 與淨土寶書 等一百九十卷也 師乃大驚異 暨其徒衆 頂禮虔奉 發信心 刊諸經數年內而傳行于世 自是四方之學佛者 莫不靡然尊敬 推以爲宗師焉.”

39) 「栢庵堂性聰大禪師碑文陰記」略譜(李智冠 編, 앞의 책, 301쪽).

있다. 성총과 관련한 어떤 기록에서도 남한산성 사찰에서 불서를 구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남한산성 사찰에서 불서를 수집했다면 그와 관련된 기록이 조금은 남아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반면에 바다에서 건져 올린 불서를 보관하고 있던 전라도의 다른 사찰에서 불서를 구했다는 기록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성총이 구봉산 보현사 승려에게 보낸 다음의 편지에서 그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제가 세 번 능가사에 갔고, 두 번 소요산 선운사에 갔으며, 그 외에 바다와 산들을 찾아 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전들을 찾아서 400여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화엄소초 80권 중에 겨우 절반 정도 얻었지만 아직 전체를 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침 저녁으로 마음에 걸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8권을 흔쾌히 보여주시어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해 주시니 이 또한 범보시의 일대 인연일 것입니다.⁴⁰⁾

『화엄소초』를 보관하고 있던 보현사에서 책을 빌려준 것에 대해 성총이 감사하는 편지이다. 보현사에서 8권만을 소장하고 있었던

40) 성총, 「與九峰普賢寺僧」, 『백암집』 권하(『한불전』8-474상~중). “某三入楞伽 再到逍遙禪雲 其餘並海諸山 無不投蹤 搜采衆經 已得四百餘卷 … 雜華疏鈔八十卷 才得太半而未由完部 此余朝夕懸係者也 貴寺中所留一匣八卷 快然見許 少補其缺 則此亦法施之一大緣也.” 여기서 400여권이라 한 것은 비문에서 190권이라고 한 것과 상충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성총이 수집한 권수가 400여권이고 간행한 권수가 190권일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李性階는 「栢庵의 思想」에서 비문을 작성할 당시에 성총이 간행한 것으로서 남아 있던 것이 190권이었거나 권수를 셈하는 차이에서 비롯된 것 같다고 하였다.

것을 보면 여러 사찰에 흩어져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능가사, 선운사를 비롯하여 바다며 산들을 찾아 헤매지 않은 곳이 없었던 모양이다. 『화엄소초』는 1690년에 간행이 1차적으로 마무리되었던 것 같다. 『화엄소초』의 많은 판본이 1690년에 판각된 것으로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기념하여 성총은 1691년에 선암사 창파각에서 화엄대법회를 열었고, 이 때 많은 대중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던 것 같다.⁴¹⁾

한편 성총이 간행한 불전을 보면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四集의 간행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위의 <표1>에서 보듯이 성총이 간행한 四集은 가흥장에 있던 것이 아니었다.

가령, 성총이 간행하였던 『선원제전집도서』는 가흥장에 수록된 『선원제전집도서』와 다르며, 가흥장에 수록된 『선원제전집도서』는 1694년에 전라도 용흥사에서 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宋刊本 『선원제전집도서』를 판각하였는데, 가흥장본과는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⁴²⁾ 그런데 1694년 전라도 용흥사에서 가흥장본 『선원제전집도서』를 간행한 것이다. 이것은 표류선의 가흥장본 『선원제전집도서』를 용흥사에서 입수하여 간행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와 『고봉화상선요』는 가흥장의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성총이 간행한 四集은 가흥장의 것이 아니라 어떤 필요

41) 「栢庵堂性聰大禪師碑文陰記」略譜(李智冠 編, 앞의 책, 301쪽).

42) 奎海住, 「선원제전집도서에 대한 고찰 I」, 『불교학보』 제34집,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97.

성에 의해 당시 유통되던 것을 다시 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성총이 표류선의 불서를 무조건 구하여 간행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수집하여 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총에게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일까?

성총이 간행한 서적을 조선후기 이력과정의 책들과 비교하여 보면 그 의도는 보다 뚜렷해진다. 이능화(1869~1943)는 『조선불교통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백암대사로부터 시작하여, 教는 사교와 대교의 과목을 정하였고, 禪은 『선문염송』을 정하였다. 어떻게 아는가? 백암이전에는 『화엄경』이 다만 疏만이 있었고 演義抄는 없었다. 또 『기신론필삭기』와 『반야경간정기』가 없어서 사교와 대교가 완전하지 않았다. … 백암대사가 목판을 간행하여 인쇄하고 유포하여 사교와 대교가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었다.⁴³⁾

이능화는 성총에 의해 사교과와 대교과의 과목이 확정되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견해의 타당성은 17세기 초에 살았던 휴정의 제자 詠月淸學(1570~1654)의 「四集四教傳燈拈頌華嚴」에 제시된 이력과목과 성총 이후에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이력과목을 비교해 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43) 이능화, 앞의 책 하편, 569쪽. “始自栢庵大師 教則定四教大教之科目 禪則定拈頌 何以知之 栢庵以前 華嚴經但有疏本 無有演義抄 又未有起信論筆削記 般若經刊定記 四教大教 未得全完 … 栢庵大師刊于木板 印刷流布 四教大教 始克全完.”

표2) 영월 청학의 이력과정 체계⁴⁴⁾

과정	수강과목
四集科	『高峰禪要』 『大慧書狀』 『禪源諸詮集都序』 『法集別行錄節要私記』
四教科	『圓覺經』 『金剛經』 『楞嚴經』 『法華經』
大教科	『華嚴經』 『景德傳燈錄』 『禪門拈頌』

표3) 『조선불교통사』에 소개된 이력과정⁴⁵⁾

과정	연한	수강과목
沙彌科	1년	受十戒 朝夕誦呪 『般若心經』 『初心文』 『發心文』 『自警文』
	3년	위의 과목에 『沙彌律儀』 『經門經訓』 『禪林寶訓』을 加入
四集科	2년	『禪源諸詮集都序』 『大慧普覺禪師書』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高峰和尚禪要』
四教科	4년	『首楞嚴經』 『大乘起信論』 『金剛般若經』 『圓覺經』
大教科	3년	『華嚴經』 『禪門拈頌』 『景德傳燈錄』

위의 <표2>와 <표3>을 비교해 보면, 사미과의 과정이 후대에 첨가되었고, 사교과에서 『법화경』이 『대승기신론』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 사미과의 경우 『치문경훈』이 중요한 교과목인데 성총이 간행한 서적 중에 『치문경훈』이 있으므로 사미과의 성립에 성총이 기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사교과의 과목이 『법화경』에서 『기신론』으로 바뀐 것도 성총의 『기신론필삭기회편』의 간행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성총이 간행한 서적과 이력과목을 비교해 보자. 沙彌科의 『치문경훈』, 四集科 전부, 四教科의 『대승기신론』 『금강반야경』, 大教科의 『화엄경』이 각각 대응하고 있다. 즉 성총이 간행한 『치문경훈』, 四集, 『기신론소필삭기회편』, 『금강경소간정기회편』, 『화엄경소연의초』, 『화엄현담회현기』가 모두 이력의 과목이거나 참고서

44) <표2>는 『한불전』8-234~235에 있는 내용을 도표화한 것으로서, 김용태의 박사논문 132쪽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45) 이능화, 앞의 책 하편, 989쪽.

에 해당하는 책들이다.

『치문경훈』은 성총이 직접 주석을 덧붙여 간행한 것인데, 이 책은 성총이 간행하기 이전에 이미 여러 곳에서 간행되어 유통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주석서가 없어서 이력과목의 교재로 사용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성총이 주석을 덧붙여 간행하여 널리 보급함으로써 사미과의 이력과목으로서 채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⁴⁶⁾

『기신론소필삭기』는 성총 당시에 유통되지 않았던 것 같다.⁴⁷⁾ 성총이 쓴 서문에 “당나라 현수대사가 疏를 지어 풀이하였고, 나중에 석벽스님이 廣記를 지어 해석하였으나 실제로는 번잡하고 쓸모없는 미비점이 있었다. 그래서 장수법사가 필삭하였으니 論과 疏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절실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유통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⁴⁸⁾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문의 내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력과목의 참고서로서 적당한 책이라고 판단하여 간행하였던 것 같다. 더구나 성총이 직접 會編하여 배우는 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論과 疏를 대조하며 볼 수 있게 하였다.⁴⁹⁾

46) 高姬淑은 「韓國佛敎 講院 沙彌科 敎材의 書誌的 研究」(『서지학연구』 제10집, 서울: 서지학회, 1994)에서 성총이 『치문경훈』을 간행한 이후에 이 책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사미과의 이력과목으로 편입되었다고 하였다.

47) 『기신론필삭기』는 현재 보물 제734-18호로서 3권이 해인사 대장경관 사이에 있는 동·서 시간관전(寺刊版殿)에 보관되어 있다. 이 목판은 고려시대에 판각된 것이다. 그러므로 『기신론필삭기』가 고려시대에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성총은 이 책을 접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48) 성총, 「刻起信論疏記會編叙」, 『기신론소필삭기회편』(『한불전』8-654). “唐賢首大士造疏以釋 嗣後石壁師 作廣記以解之實傷繁冗 長水法師 即筆削而於中節論通疏 最爲切當我海東 則未有聞.”

49) 이 책의 내용과 간행에 따른 조선 후기 불교의 영향에 대해서는 조명제의 앞의 논문을

『금강경소간정기회편』도 전쟁으로 판본이 소실되어 당시에 유통되지 못하였던 모양이다. 성총은 그 서문에서 “疏를 써서 기록한 자는 규봉종필과 장수법사 뿐이었는데, 두 스님은 하나같이 다른 논리로 사람들의 지남이 되었다. 그러나 규봉의 疏는 이미 경전에 포함되었지만 장수법사의 기록만 별도로 전해지다가 근래에 판본마저 전쟁으로 불에 타버렸다. 그래서 배우는 자들이 손으로 베끼는 것이 매우 힘들고 또 여러 사람에게 전해지다 보니 물학에 뒤쳐져서 豕자인지 亥자인지 구별하지 못하여 보는 것도 어려웠다.”⁵⁰⁾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책 역시 이력과목의 참고서로서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간행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화엄수소초』는 일찍이 신라시대에 전래되어 고려시대에도 유행하였으나 조선 초기에 일실되어 없어졌던 것을 성총이 표류선에서 구해 간행한 것이다.⁵¹⁾ 이렇게 간행된 『화엄소초』는 18세기 화엄학의 유행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강원에서는 화엄학의 대가가 되어야 강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였다. 18세기에 묵암최눌(1717~1790)이 송광사에서, 연담유일(1720~1799)이 대둔사에서, 인악의침(1746~1796)이 동화사에서 활동하였는데 화엄학의 대가로서

참조하기 바란다.

50) 성총, 「重刻金剛經疏記會編序」, 『금강경간정기』(서울: 보림각, 영인본, 1968). “疏之記之者 獨圭山長水耳 二師 一以兩論 爲指南 然圭疎已合於經 長水之記 獨別行而近又板本 燬于兵燹 學者 手抄甚艱 且歷傳衆手 雜於水鶴 莫辨癸亥 覽者 病焉.”

51) 성총, 「海東新刻清涼華嚴疏鈔後序」, 『화엄소초』(송광사 성보박물관 소장,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明眼, 「新刻華嚴疏鈔後跋」(大源庵 刻成 『화엄소초』 제80권); 혜남, 앞의 논문, 1992; 盧在性, 「澄觀 華嚴經疏鈔의 流傳について」, 『佛敎文化의 展開』, 大久保良順先生傘壽記念論文集, 東京: 山喜房佛書林, 1996; 盧在性, 「華嚴經疏鈔의 韓國流傳について」, 『宗敎研究』 65, 日本宗敎學會, 1992.

모두 『화엄소초』에 정통했던 점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 성종 이전에 『화엄경』은 이미 이력과목으로서 채택되어 교재로 사용되었으며,⁵²⁾ 『화엄경소』도 유통되고 있었지만, 『화엄소초』가 없어서 학자들이 화엄의 자세한 뜻에 대해 근거할 데가 없었다. 그런데 이 때 성종이 『화엄소초』를 새롭게 간행함으로써 화엄학의 유행에 큰 전기가 마련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책의 간행도 이력과목의 참고서로서 활용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력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서 『대명삼장법수』, 『정토보서』, 『사경지험기』가 있다. 『대명삼장법수』는 오늘날의 사전과 같은 책이므로 강원에서 공부하는 승려들에게 있어서 매우 유용한 책이다. 그러므로 이 책 역시 이력과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참고서로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토보서』와 『사경지험기』는 정토신앙을 고양하고 경전의 수지 독송을 강조한 것으로서 5권 2책의 분량에 불과하여 190권이 넘는 성종의 불서 간행에 비하면 미미하다. 그러나 성종 사후에 간행된 것으로서 성종이 직접 저술한 4韻 8句 100首의 『淨土讚』과 더불어 18세기 불교계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본다면 결코 그 가치가 적지 않다. 특히 1704년에 明衍(생물년 미상)에 의해 처음 간행된 『염불보권문』이 80여년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최소 6번 이상 覆刻과 改刻이 이루어지며 크게 유행했던 것⁵³⁾은 『정토보서』와 『정토찬』의 간행이 선행

52) 宗梵, 「講院教育에 끼친 普照思想」, 『보조사상』 제3집, 서울: 보조사상연구원, 1989, 75~87쪽. 김용태의 박사논문 132페이지 참조.

53) 김영배·정우영·김무봉 편저, 『念佛普勸文의 國語學的 研究』, 서울: 동악어문학회, 1996.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18세기 불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절문·원돈문·염불문의 三門에서 염불문이 독자적 영역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성종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4. 맺음말

이상의 내용에서 1681년 임자도에 표류해온 중국 선박의 실체와 그 속에 담겨 있던 불서의 종류, 그리고 성종의 불서 간행에 대해서 이전 연구에 비해 좀 더 진전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임자도에 표류해온 중국 선박은 일본으로 가던 중국 무역선으로서 당시 해상을 장악하고 있던 정씨 일가에 의해 통제받던 상선일 것으로 추정된다. 1661년 이후로 정씨 일가는 청나라와 대립하며 대만을 근거지로 하여 해상을 장악하고 있었고, 청나라는 海禁 정책을 엄격히 적용하여 해상무역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당시 외국과의 무역을 할 수 있는 세력은 정씨 세력 이외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표류선의 정체는 정씨 일가의 비호를 받는 무역선이라고 할 수 있다.

표류선에 있던 불서는 관아에서 건져 서울에 보낸 것도 있었지만 인근 사찰에서 건져 올린 것도 있었다. 그 중에서 일부의 불서를 성종이 수집하여 간행하였는데, 그 가운데에는 『화엄소초』가 있었다. 성종이 간행한 『화엄소초』는 1625년경에 섭기윤이 간행했던 것으

로서 가홍장의 속장 이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다. 게다가 성총이 간행한 『정토보서』는 여러 정토서적의 글을 편집하여 엮은 것인데 그 인용 서적 또한 가홍 속장에 수록된 정토 서적이었다. 따라서 표류선의 불서는 가홍 속장을 포함한 가홍장임을 알 수 있었다.

가홍장은 중국의 민간에서 명나라 말기부터 간행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서 판매를 위해 인쇄되었으며 일본에까지 수출되었다. 그리고 그 가홍장을 복각하여 간행한 것이 일본의 황벽장이다. 황벽장은 일본의 鐵眼道光이 발원하여 1669년부터 1681년에 걸쳐 간행한 것으로서 가홍정장의 목록과 일치한다. 그런데 1681년은 황벽장의 완료시점일 뿐만 아니라 가홍속장을 실은 중국 무역선이 임자도에 표류해온 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표류선의 불서는 일본에서 황벽장을 간행하던 사람들에 의해 구입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이 사실이라면 중국 무역선이 안전하게 일본에 도착하였다 라면 황벽장은 가홍속장까지도 복각하여 지금보다 훨씬 많은 분량이 되었을 것이다.

한편, 표류선의 불서를 4년에 걸쳐 수집한 성총은 1685년에 징광사로 가서 판각하기 시작하였다. 제일 먼저 판각을 마친 것은 『정토보서』였다. 이 책은 가홍속장에 있던 여러 정토서적의 내용을 발췌하여 엮은 것으로서 정토신앙을 강조하고 있다. 이후 성총은 총 12종류 197권 5000판의 책을 간행하였다. 특히 이 중에서 『화엄소초』는 18세기 이후 불교계에 화엄학이 유행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성총은 직접 『정토찬』이라고 하는 100수의 시를 지었는데 이 책은 『정토보서』와 더불어 18세기 정토신앙의 유행에 밑거름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성총의

불서 간행에 의해 18세기 三門修學이 일반화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 말부터 불교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禪의 경절문에 원돈문과 염불문이 더해져 불교계가 더욱 풍부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성총이 간행한 불서의 종류를 보면, 총 12종류의 불서 중에서 四集을 포함한 9종류가 당시에 성립되어 가던 이력과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치문경훈』은 사미과, 四集은 사집과, 『대승기신론필삭기회편』과 『금강반야경소론찬요간정기회편』은 사교과, 『화엄소초』는 대교과에 각각 대응하고 있다. 이들 서적들은 모두 이력과목의 참고서로서 18세기 이력과정의 확립에 크게 기여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성총의 불서 간행 속에는 조선 사회를 넘어 중국과 일본과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조선후기 불서에 대해 접근할 때, 단순히 국내의 유통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하리라 생각된다. 우연적 교류이기는 하지만 표류선에 의한 불교교류는 이후 삼국 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I. 원전류

1. 백암 성종의 自序

- 「淨土寶書序」(『한불전』8-484)
- 「重刻金剛經疏記會編序」, 『금강경간정기』(보림각 영인본, 1968)
- 「四經持驗紀跋」(『한불전』8-526)
- 「海東新刻清涼華嚴疏鈔後序」(1700년 범어사분각 『화엄소초』,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刻大明三藏法數序」(1690년 운흥사刊 『대명삼장법수』)
- 「叙刻華嚴懸談演義會玄記」(1695년 쌍계사刊 『화엄현담회현기』)
- 「叙註緇門警訓」(『한불전』8-552)
- 「刻起信論疏記會編叙」(『한불전』8-654)

2. 기타

- 『숙종실록』
- 『승정원일기』
- 『백암집』(『한불전』8)
- 명안, 「新刻華嚴疏鈔後跋」(大源庵 刻成 『화엄소초』 제80권)
- 金相福 撰, 「栢庵堂性聰大禪師碑文」(『韓國高僧碑文總集』, 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0)

II. 저서 및 논문류(가나다순)

1. 국내 저서 및 논문

- 고희숙, 「韓國佛教 講院 沙彌科 教材의 書誌의 研究」, 『서지학연구』 제10집, 서울: 서지학회, 1994.
- 김영배 · 정우영 · 김무봉 편저, 『念佛普勸文의 國語學的 研究』, 서울: 동악어문학회, 1996.
- 김용태, 「‘浮休系’의 계파인식과 普照遺風」, 『보조사상』 제25집, 서울: 보조사상연구원, 2006.
- 김용태, 「朝鮮後期 佛教의 臨濟法統과 教學傳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이능화, 『朝鮮佛教通史』 하편, 서울: 新文館, 1918.
- 이만, 「백암화상」, 『한국불교인물사상사』, 서울: 민족사, 1990.
- 이성타, 「栢庵의 思想」, 『승산박길진박사화갑기념한국불교사상사』, 원광대학교, 1975.
- 이종수, 「조선후기 淨土思想 연구」, 『회당학보』 제13집, 서울: 회당학회, 2008.
- 전해주, 「선원제전집도서에 대한 고찰 I」, 『불교학보』 제34집,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97.
- 정각, 「삼문수업의 형성에 기여 백암성종」, 중앙승가대학교 신문사, 『한국불교인물사상사』, 승가대신문사, 2000.
- 조명제, 「栢庵性聰의 佛典 편찬과 사상적 경향」, 『역사와 경계』 제68집, 부산: 부산경남사학회, 2008.
- 종범, 「講院教育에 끼친 普照思想」, 『보조사상』 제3집, 서울: 보조사상연

구원, 1989.

· 혜남, 「清涼 華嚴經疏鈔의 流傳」, 『脩多羅』7, 합천: 해인사승가대학, 1992.

2. 외국 저서 및 논문

· 高橋亨, 『李朝佛教』, 東京: 寶文館, 1929.

· 盧在性, 「華嚴經疏鈔의 韓國流傳について」, 『宗教研究』65, 日本宗教學會, 1992.

· 盧在性, 「澄觀 華嚴經疏鈔의 流傳について」, 『佛教文化の展開』, 大久保良順先生傘壽記念論文集, 東京: 山喜房佛書林, 1996.

· 大槻幹郎, 「黃檗版大藏經の原本について」, 『(影印)黃檗版大藏經刊記集』, 京都: 恩文閣出版, 1994.

· 大藏會 編, 『大藏經-成立と變遷』, 京都: 百華苑, 1989.

· 李富華/何梅 著, 『漢文佛教大藏經研究』, 北京: 宗教文化出版社, 2003.

· 佛教大學佛教文化研究所 編, 『獅谷法然院 所藏 (麗藏對校)黃檗版大藏經 竝 新續入藏經目錄』, 京都: 佛教大學 佛教文化研究所, 1989.

· 寺尾善雄, 『(明末の風雲兒)鄭成功』, 東京: 東方書店, 1986.

· 石原道博, 『鄭成功』, 東京: 三省堂, 1941.

· 松丸道雄 外4人 編, 『中國史』4, 東京: 山川出版社, 1999.

· 呂徵, 『呂徵佛學論著選集』3, 齊南: 齊魯書社出版, 1996.

· 任鴻章, 『近世日本と日中貿易』, 東京: 六興出版, 1988.

· 赤松晉明, 『鐵眼禪師』, 弘文堂, 1942.

· 中島隆藏, 「嘉興續藏所收『大方廣佛華嚴經疏演義鈔』較刻の葉祺胤」, 田中良昭博士古稀記念論集刊行會 編, 『禪學研究の諸相』, 東京: 大東出版社, 2003.

· 中嶋隆藏, 『明萬曆嘉興藏の出版とその影響』, 東京: 東北大學大學院, 2005.

· 陳智超, 韋祖輝, 何齡修 編, 『旅日高僧隱元中土來往書信集』, 北京: 中華全國圖書館文獻縮微複製中心, 1995.

· 荒野泰典,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9.

The Drifting Ashore of a Chinese Ship in the 7th Year of King Sukjong's Era and the Subsequent Publication of Buddhist Books by Baegamseongchong

Lee, Jong-su
Dongguk University

Baegamseongchong played the most important role in the publication of Buddhist books in the late Joseon Dynasty. In 1681, a Chinese ship shored up on the coast of Imja Island in South Jeolla Province, and some Buddhist books from the wrecked ship were gathered by Baegamseongchong. He published 197 volumes, composing of 5000 printing blocks, of Buddhist books at Jinggwangsa Temple and Ssanggyesa Temple. Many scholars have focused on Baegamseongchong's publication; however the source of its rediscovery - the shipwrecked Chinese boat - has remained unexamined.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dentity of the ship and the books it was carrying, and to elucidate the purpose of Baegamseongchong's publication.

When one considers the fact that the Jeong family, who, at the time occupied Taiwan and was active in resisting the Qing

Dynasty, had command of the East Asian sea, it is possible to regard the ship as a Chinese merchant ship which had trade relations with Japan under the patronage of the Jeong family.

Baegamseongchong gathered the remaining books from the ship and published them. Among those published was the *Commentary and Subcommentary on the Avatamsaka Sūtra* (華嚴疏鈔) by Chengguan (澄觀), which was published by Seop Gi-yun (葉祺胤) in the 1620s. This book belonged to the second edition of the Tripitaka Jia Xing. It is now possible to apprehend that the books from the wrecked ship were the Tripitaka Jia Xing. It was also discovered that some of the books from Baegamseongchong's publication did not belong to the Tripitaka Jia Xing. These books were textbooks for the Sajipgwa lesson (四集科), a Buddhist education course which was coming into existence at the time. Furthermore, the books from the Tripitaka Jia Xing were also a reference book for the education course. This fact shows that the purpose of Baegamseongchong's publication was to use the books for the Buddhist education course.

Key Word

Baegamseongchong, a drifted ship, a publication of Buddhist books, Tripitaka Jia Xing, *Commentary and Subcommentary on the Avatamsaka Sūtra*

한국 근대 불교계의 민족인식

김순석
한국국학진흥원

1. 머리말
2. 불교계의 민족인식 형성 과정
 - 1) 수용기(1877 ~ 1905)
 - 2) 형성기(1905 ~ 1912)
3. 「대한승려연합회선언서」에 나타난 민족인식
4.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에 나타난 세계평화주의
5. 맺음말